

제19회 교단 총회 및 목사 안수식 거행 전 세계 9,300여 개 지교회를 가진 세계적 교단으로 도약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의 오중 복음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창대히 이루고 있는 예수교대한 연합성결교회 「제19회 교단 총회 및 목사 안수식」이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만민중앙교회 본당에서 치러졌다.

첫째 날에는 1부 개회 예배를 드린 후, 2부 의회 순서로 들어가 개회선언문 낭독, 회순통과, 임원선거, 건의안 및 각 부 조직 보고, 청원서 수리, 2009년도 결산 등을 의결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총회 임원 선거에서 총회장 이재록 목사, 부총회장 이수진 목사, 정구영 목사, 이정호 장로, 총무 이증원 목사, 서기 조대희 목사, 부서기 길태식 목사, 회계 이미경 목사, 부회계 이미영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둘째 날에는 총회장 이재록 목사의 집례로 총 21명에 대한 목사 안수식이 있었고,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할렐루야선교단의 특송과 닷시 오케스트라의 축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편, 목사 안수식에서 총회장 이재록 목사는 '마음'(요 15:7)이라는 제목으로 "변개함이 없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영의 마음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야 한다."며 안수자들에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듯이 주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생명 다해 돌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목사 안수자는 이성숙, 나진홍, 윤진영, 허유선, 김정오, 정진영, 최반석, 이영철, 서동묵, 신용수, 강요셉, 고영대, 선봉기, 현동근, 주근아, 성숙, 한정희, 이해천, 김춘호, 도끼꾸니미야꼬, 고마즈미끼 총 21명이다.

미전도지역에 하나님 사랑을! 베트남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베트남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가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우리 교회 부목사 이성철 목사를 강사로 메콩델타와 호치민에서 있었다.

현지어로 준비해간 '권능' 비디오 상영 후, 이성철 목사는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십자가의 십리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 '빛 가운데 거할 때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성철 목사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자 10년 이상 굽어 있던 손가락이 펴지고 위와 가슴의 질병이 치료되고 갖가지 통증이 사라지며 못 들던 팔이 올라가고 고혈압이 치료되는 등 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복음전파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과 핍박을 견디며 사역해 온 현지 목회자들은 큰 용기와 능력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번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를 통해 111개 교회가 지교회로 가입했다.



- 위치 : 동남아시아 • 수도 : 하노이(Hanoi) • 언어 : 베트남어
- 기후 : 열대몬순 • 면적 : 33만 2501km² • 정체 : 사회주의공화국
- 종교 : 불교 70%, 가톨릭교 15%, 개신교 1% 미만,
그 외 자생종교 까오다이, 호아하오 등

감사와 거룩한 예식

맥추감사주일 기념예배 및 성례전

맥추감사주일 기념예배 및 성례전이 7월 5일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대예배 때에 「축복」(신 28:1-6)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잘되는 영적 축복과 가정, 일터의 육적 축복, 그리고 교회에 부어주신 축복을 생각함으로 감사가 넘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녁예배 때에는 「축복」(요 6:53-55)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설교 후 진행된 성찬식을 통해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되새기며 그 마음을 닮음으로써 더 큰 축복의 열매로 나올 것을 다짐했다.



| 칼럼 |

어떤 방법을 택할까?

칭찬의 효과가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두 가지 유형의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가 예배시간에 떠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며 야단치는 부모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단다."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혹 실수라도 하면 '또 슬퍼하시겠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구나.' 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하며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할까요?

글 이재록 목사
한국경제신문 연재 '생명수'에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3)

우리가 입술의 말을 주의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더디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당치 않은 말로 인해 믿음으로 쌓은 것이 헐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1. 말에 실수가 없어야 응답과 축복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은혜와 덕이 되지 않으며, 선한 의도로 말했어도 상대는 선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했고,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히 진리를 채워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되면 늘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마음에 선만 가득하다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에 악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

1) 범사에 무익한 말은 하지 않아야

먼저, 거짓말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상대에게도 해가 됩니다. 상대의 거짓말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고, 거짓말 하는 자체가 육체의 일이므로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숨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문서답도 무익한 말입니다. 동문서답이란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뜻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서 듣기 때문에 발생하지요. 따라서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동문서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거짓말, 남의 탓을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문서답하는 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농담이나 세상의 유행어도 무익한 말입니다. ‘농담’은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입니다. 농담을 즐겨 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고 신뢰가 가지 않으므로 비밀을 나누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기

어렵고, 또한 영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엡 5:4). 사실을 부풀린 과장된 말과 이치에 맞지 않는 허탄한 말 등도 모두 농담에 포함됩니다. 세상 유행어에는 세상 풍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물들 수 있지요. 그러므로 악의가 담겨 있지 않는 유행어라도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범사에 무익한 말,
분수에 넘치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마 12:36~37). 물론, 자복하고 회개한 것은 사라지지만 무심결에 내뱉고 잊어버린 무익한 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으니 무익한 말을 내지 않도록 범사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유익한가’를 생각하여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을 심어 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엡 4:29). 특히 성전에서는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믿음을 심어 주는 영적 대화 외에는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 분수에 넘치는 말은 하지 않아야

‘분수(分數)’란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교만함으로 마음이 높아진 경우에 분수에 넘치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말은 판단, 정죄, 다른 사람에 대한 헐뜯거나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에게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약 4:11-12). 하나님 자녀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도 분수에 넘치는 말입니다. 지옥 불에 떨어

질 뻔 했으나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환경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지요. 마음이 겸손해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을 맡겨도 오직 감사하며 순종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이는 당시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받아들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받은 수로보에게 여인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어 비유해도 실망하고 포기하거나, 업신여김 당했다고 분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구해 응답을 받습니다(마 15:27).

3)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을 해야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이 잘 안되고 어려워지지만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고백을 하면 안되던 일도 잘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눈앞의 현실을 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디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갔지요(삼상 17:45-47). 이러한 다투의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다투의 물맷돌 하나를 통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열두 정탐꾼 중 열명은 부정적인 고백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차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정탐꾼 중 열명은 부정적인 고백을 합니다(민 13:32-33). 이 보고는 백성들에게 탄식과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며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민 14:7-9).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입 밖으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훈련을 해서라도 늘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주변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잠 13:2) 했습니다. 입 앞에 파수꾼을 잘 세워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이재록 목사 신간 |

나를 찾아가는 신비로운 이야기
『영혼육』(상)



4차원을 넘나드는
심오한 영성과 통찰력으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사람의 영혼은 언제 주어지는가?’,
‘내 씨를 키운 생명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육, 육신, 육신의 일, 육체,
육체의 일, 혼, 영 등에 대한
영적 의미와 난해구절이 풀리며,
성경과 인간의 근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우림북 (02) 837-7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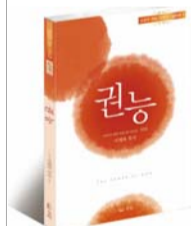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성결과 권능 시리즈
입문편 1

간혹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

권능



성결과 권능 시리즈
실천편 3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권능의 파노라마! 홍수처럼 쏟아지는 축복의 소식! 과연 어떤 사람들이 권능을 받는 것일까? 누가 삶 속에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일까?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성결과 권능 시리즈
실천편 4

낮과 밤, 하늘과 바다, 땅과 산천초목, 사람을 지어낸 근본의 소리! 근본의 소리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당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제설교모음
기도 편

기도는 전능자 하나님 마음을 두드리고 여는 열쇠. 시공을 초월하는 강력한 무기. 많은 크리스천이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은 사건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 일어났다.

깜짝 놀랄 매출 성장?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CJ쇼핑몰, GS이숍 등 국내 유명 쇼핑몰 총판 및 제휴

전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는다. 2008년 2월 회사 설립 후,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모아코스'의 대표 **김문진 집사**(2대대 10교구, 1-1남선교회)를 통해 축복의 비결을 들여보자.



모아코스 식구들과 함께한 김문진 집사 (가운데)

돈 욕심을 버리라, 정도경영만이 살 길이다

“‘모아코스’는 모세와 아브라함의 축복을 뜻합니다. 여러 제조사와 독점적 유통계약(총판권)을 맺고 국내 유명 종합쇼핑몰에 상품 기획, 유통, 마케팅 등 일체를 대행하는 회사이죠. 그런데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쓸 때부터 매달 드릴 십일조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을 금액을 비용란에 넣고 시작했습니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은 있었지만 그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뉘앙스를 꾸미는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다.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다.

‘정도를 걸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누누이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다. 절세 요령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

이기에 편법을 동원하지 않았다. 초기에 순이익이 얼마 남지 않아도 매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것만큼은 변개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도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자금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유통업체간에 힘겨루기에서 이길 수 있는 큰 인맥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도 상존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다. 그랬더니 국내 굴지의 회사들과 계약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지혜를 받아야 이긴다

사업을 시작하자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이 ‘기도 쉬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 역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아뢰는 사업성패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영업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했다. 그때마다 미처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순조롭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그는 처음엔 “하나님, 이 회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회사와 꼭 계약이 성사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 중에 “네가 임의로 결정하지 마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렸다.

순종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뒤 대형 제약회사의 총판권을 따내는 체험도 했다. 내 생각대로 구하면 작은 축복은 받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생각지 못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직원에 대해서도 주님 사랑으로 품었더니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보내 주셨다. 알고 보면 그동안 심어 놓은 아내 임규희 집사의 간절한 기도가 톡톡히 한몫을 했다.

“전통적인 유통시장이 쇠퇴하고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에 ‘모아코스’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축복의 시작일 뿐이지요.”

그의 고백처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파워, 권능의 기도... 당뇨병을 치료받다

김성국 성도 (새대구만민교회)



작년 1월경,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곤을 많이 느끼고 삶의 의욕마저 떨어졌습니다. 소화불량과 속 쓰림, 안구의 통증과 누군가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듯한 압박감도 몹시 고통스러웠죠.

“당뇨입니다. 보통사람은 혈당이 126mg% 정도인데, 지금 혈당이 327-384mg%인 고혈당이에요. 게다가 합병

증까지 생겨 위궤양, 심이지장궤양 등 각종 장기들이 손상된 상태예요. 빨리 입원 치료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당뇨는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병을 키우는 일이 많다는데 제 경우가 그랬지요. 결국 저는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새대구만민교회(담임 심완섭 목사) 출석하던 저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몹시 궁금했던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새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이 매우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되었지요.

제가 당뇨와 합병증 치료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을 때, 고맙게도 온 가족과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저를 위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2009년 3월, 당회장님께 기도받을 때 힘이 없던 몸에 힘이 주어지고 시야도 또렷해졌습니다. 그 후 마음껏 음식을 먹어도 정상 혈당이며 장기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지요. 2009년 5월 병원 검사 결과, 혈당이 101mg%로 정상이었으며 당화혈색소와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7월의 신록처럼 늘 푸른 미래를 꿈꾸며 살아요

친구들과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학생들 사이에서 유난히 표정이 밝은 **신푸름 자매**(고등부 연합회장, 정화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급회장과 부회장을 하며 교우들과 선생님들에게 사랑받는 푸름이는 최근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본이 되는 학생에게 주는 동대문구청장 모범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푸름이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받는 것이 예상 밖인 모양이다.

“저는 노래방이나 영화관 같은 데도 안 다녀요. 친구들에게 특별히 잘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두루두루 사랑해 주셔서 신기해요.”

그러나 푸름이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저를 불편해하는 친구한테도 먼저 다가가고 다른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나 비밀은 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를 좋게 생각하고 믿어 주었어요.”

푸름이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했을 뿐인데 친구들의 눈에는 요즘 아이 같지 않게 바르고 속 깊은 친구로 느껴졌을 것이다. 친구들이 ‘너는 왜 욕을 안 하나?’고 물어 보거나 ‘지금까지 한 번도 욕하는 걸 못 들어 봤다.’고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외모나 이성 교제 같은 것보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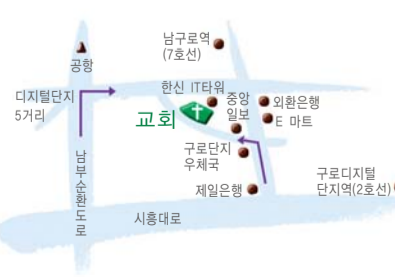
신푸름 자매(가운데)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에 더 관심이 많다는 푸름이는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로 준비 중이라고 한다.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 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오후 8:00
	2부 · 오전 11:3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 오전 11:4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 오후 1:30

교회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팀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070-8240-56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 우리은행 072-255732-02-201
- 농협 100072-52-061722
- 우체국 012419-02-047269

콩고민주공화국 부엌보

손수건 기도, 그 뒤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 축복

실라 카비라 팔리아

저는 위암 말기로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
다. 재발을 거듭해 네 차례나 수술을 받았지
만 몸은 여전히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지요.

“여보! 마지막으로 케냐 나이로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봅시다.”

남편의 권유에 홀로 나이로비 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는 평소 친분이 있는 무
힌도 장로님이 마중 나왔지요. 장로님은 병
원에 가기에 앞서 나이로비 만민교회 정명호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받
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장로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쩔 수 없
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병도 치료하실 수 있다
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 나타나는
치료 역사를 전해주었지요.

제 마음은 흔들렸고, 결국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가게 되었습니
다. 때마침 은사집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듣고 감
동과 희열이 넘쳤습니다. 이제록 목사님께서 전 세계에 나타내 보
이신 권능의 역사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병어
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에이즈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



는 장면을 목도한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
지요.

정명호 목사님은 은사집회에 참석한 이들
에게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고, 말씀에 순
종치 못한 것을 중심에서 회개하고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다.” 고
하셨습니다. 집회가 마친 뒤, 제가 처한 상
황과 가족 문제에 대해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위암이고, 남편은 부도난 사업과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딸은 2년 동안 아
이가 없으며 아들은 가출하여 행방을 모릅니다.”

“먼저 가족이 3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남편과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저희는 3일 금식을 한
뒤,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정명호 목사님에게 권능의 손수건 기도
를 받았지요. 목사님은 제 머리에 손수건을 얹고 기도해 주신 후
남편과 딸, 아들 사진 위에 차례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뒤 암
으로 죽어가던 저는 건강을 되찾았고, 남편도 심장병 치료와 함
께 사업터에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한 아
들도 돌아와 주님을 영접했고, 딸도 두 달 후에 임신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복합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 휴스턴

인터넷을 통해 기도 받았을 뿐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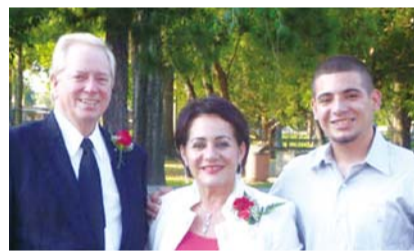
메르시다 델가도 스톤

저는 베네수엘라인으로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살고 있습니
다. 이제록 박사님을 알게 된 것은 2007년 2월, 베네수엘라에 있는
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엔라세 방송(중남미 최대 기독교방송사)의
이제록 박사님 설교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는 언니는 만민중앙
교회 홈페이지(스페인어)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저는 인터넷으로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박사님의 말씀을 감명 깊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은 제 삶에 큰 축복입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흘러나오는 박사님의 환자 기도도 수많은 사람
이 치료받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박사님의 기도를 통해 요
실금을 치료받았을 뿐 아니라 남편과 어머니의 질병 문제도 해결
받았지요.

작년 8월, 남편 잭 루이스 스톤(63세)은 심전도 검사 결과, 정맥
3개가 막힌 심장질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가슴을 절개해 다리에
있는 정맥을 이식하는 대수술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는 급히 서울로
서신을 보내어 이제록
박사님께 기도를 요청
했습니다. 3일 뒤 검사
결과는 막힌 3개의 정
맥이 뚫려 정상이 되었
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와 남편은 기뻐 어쩔 줄
몰랐지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어머니의 요
실금도 제가 인터넷으로 사진 기도를 받았을 때 치료되었습니다.



박사님은 죄악 된 세상에서 죄와 온전히 구별된 자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성결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계
십니다. 박사님 저서들을 각각 두세 번 읽으면서 제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그분 말씀에 순종하
는 것은 제 삶의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일본 호코타

50년 앓던 대인공포증을 치료받아

이이츠카 마사루



저는 16세에 걸린 대인공포증 때
문에 어두운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
다. 19세 때 두 차례의 자살 시도와
약 10개월 동안 정신착란 상태로 지
내기도 했지요. 21세 되던 해, 종교
에 의지하고자 주님을 영접한 후 헌
신을 결심한 저는 교회에서 살았습
니다. 하지만 대인공포증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저는 결국 교회에서 나오고 말았지
요. 그 뒤 결혼하고 생활을 꾸리기 위해 성인 비디오테이프 대여
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너무나 곤고하
고 괴로워 결국 비디오테이프를 처분했지요.

영적으로 갈급한 저의 목마름을 채워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은 바로 이다 만민교회에서 보내주는 일본어 '만민중앙소식' 이
었습니다. 2007년 2월, 저는 교회로 연락해 유승길 목사님을 만
났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손수건 기도를 해 주실 때 무언가 표현
할 수 없는 강한 힘에 압도되면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다음 달, 호코타 만민교회를 세우고 GCN 방송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작년 3월, 대인공포증
을 치료받고자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지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이제록 목사님께서 “기도
합시다.” 라고 하시는 순간 강한 힘이 제 몸으로 주욱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순간 치료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지요.

낮선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조차 두려웠던 제가 기도받은 뒤에
는 편안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 할 수 있었으니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50년 앓던 대인공포증이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4575-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8/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9870-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중앙교회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488 삼익 2차 101동 704호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08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동 화심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태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미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1-608-30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929-1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65-1
☎031)840-2906, 019-251-3149